

# 2012, ESCO 송년의 밤

취재 / 편집부

ESCO협회(회장 이범용)는 11월 21일 라마다 서울호텔 하늘정원에서 업계 관계자 및 회원사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올해 3년째 치르는 송년의 밤 행사는 단순한 친목 모임이 아닌 ESCO기업 간 단합과 정보교류의 장을 겸해 마련되어 업계의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 이범용 회장은 개최 인사말을 통해 “올 한해 회원사들의 성원 덕분에 많은 변화 속에서도 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하며 전진할 수 있었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에너지관리공단 강원규 이사의 축사 이후 법무법인 율촌 변용재 변호사의 '에스코 자금 관련 판례소개와 중국 및 동남아시아 진출 방안'과 용인송담대 문종훈 교수의 '시장친화적 ESCO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결과 발표가 이어졌다. 변용재 변호사는 ESCO자금 관련 법원 판례를 소개했으며, 중국 및 동남아 ESCO시장의 진출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중국 및 동남아의 경우 아직은 ESCO 관련 제도 및 관행이 정립되지 않아 많은 리스크가 있지만, 충분한 사전검토 및 전략 수립, 현지 파트너의 활용, 국내 기업과의 공동 진출, 효과적인 분쟁해결수단 등을 잘 준비한다면 오히려 큰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진출하려는 나라의 제도가 정비되면 시장진입은 좁아지기 마련이라며 지금이 기회라고 강조하며 현실의 어려움을 기회로 승화하라고 조언했다. 아울러 적극적인 해외진출을 위해서는 국가별 제안서를 작성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종훈 교수는 시장친화적 ESCO활성화방안에 대해 ESCO 투자사업 효과검증과 시장친화적 ESCO 발전 방안제시, ESCO 기술력 부족현상에 대한 해결방안 제시, 국내 ESCO의 해외진출방안 제시의 순서로 발표했다.

ESCO 투자사업 효과검증 부분으로는 정책자금의 지원규모는 한계가 있고 대기업의 경우 민간자금을 일정규모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민간자금 중에서도 이자율이 낮은 자금을 활용하는 것이 경제성이 우수하다고 강조했다. 시장친화적 ESCO 발전 방안제시의





업체지원을 중심으로 하는 성과배분보다는 기술력, 정부정책의 반영정도 등을 평가해 경쟁력 있는 업체들을 선별해 지원하는 성과보증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해야 할 것이다



부분에는 건물부문, 산업부문, 홍보부문, 계약부문으로 나누어 설명했고 시장확대부문으로는 그린크레딧제도와 연계한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을 통합 지원 운영 등을 언급했다. ESCO 기술력 부족현상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기술력을 제고해 ESCO 수요자로 하여금 기술적인 만족감을 제공하고 신뢰성을 확보해야 할 것을 조언했다. 또한 국내 ESCO의 해외진출방안으로는 전문 능력을 갖춘 해외진출 전문단 조직 후 각국의 시장조사를 실시하고 진출 가능 국가와 선진기술 컨소시엄이 가능한 국가를 조사하는 등 성공적인 해외진출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에너지관리공단 허수영 팀장이 정책자금 운영 현황에 대해 언급하면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있으며 금년에 정책자금이 다 소진된 가운데 있지만 한정된 예산 가운데 지금도 추천을 받고 있다”고 하며 “내년도 예산은 정책자금은 줄고 민간자금이 늘어나며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상관없이 지원될 가능성이 있다며 사업추진시 이 점을 감안하라”고 강조했다.

이번 송년회는 일반적인 송년회에서 승화된 한차원 높은 ESCO의 발전에도모하고자 마련한 행사로 정부와 협회, ESCO업계간 정보교류의 장이 된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평가된다.

